

'0에서 1'만큼 '1에서 2'가 중요하다

안 준 용
사회정책부

자녀 하나님을 둔 많은 엄마·아빠들이 처음으로 '둘째를 낳을까' 고민하게 되는 장소는 놀이터다. 형제자매와 뛰노는 다른 아이들 옆에서 혼자 노는 내 아이를 보고 '우린 하나님으로 끌이야' 했던 옛 다짐도, 첫 출산의 고통도 잠시 잊는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아침 출근길에 눈 비비는 아이를 가까스로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래. 우리가 무슨 둘씩이 나...' 아이 키우는 기쁨을 알기에 둘째를 생각하지만, 동시에 버거운 육아 현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한다.

이 같은 1자녀 가구를 2자녀 가구로 만들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밝힌 '2030년 합계출산율 1.0'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아이 없는 부부가 하나를 낳도록 하는 '제로(0)에서 1'에 집중돼 있다. 주택 지원은 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결혼특별세액공제나 난임 시술 지원 강화도 '0에서 1'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이다. 반면 1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가정 양립'은 유연근무제, 아빠 출산휴가 등 여러 제도가 있지만, 우리 직장 문화에선 제대로 쓰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놓고선 '주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나 쓸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일·가정 양립 대책에서 기업 등 민간이 동참할 유인은 '사회적 책임' 외엔 보이지 않는다.

1자녀 가구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아이 없는 부부들에겐 본인들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1자녀 가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낳고 싶을 수도, '딩크(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로 평생 남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일종의 '전시효과(展示效果)'다. 지난 2월 서울 서대문 구 한 빌라에선 뇌병변 장애를 가진 열 살배기 딸과 40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긴 뒤 번개탄을 피웠다. 이런 소식에 아이 키우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면 출산율은 올릴 수 없다.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 아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청진적 지원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 문제 등을 종합한 컨트롤타워로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핵심은 부처의 몸집이 아닌 정책의 디테일이다. 이제 그간 내놓은 수많은 출산·양육 지원책 중 육아 현장에서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실제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를 낳도록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0에서 1도, 1에서 2도 가능해진다.

朝鮮日報 The Chosunilbo 제32167호 단기 4357년
우 045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1길 30 전화(02)724-5114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태평로1가 61번지)
독자서비스센터 전화 1577-6585 FAX(02)724-6299 홈페이지 members.chosun.com
광고문·안내 전화 02)724-5838, 6666 FAX(02)724-5809 홈페이지 about.chosun.com
구독·배달안내 전화 080-900-0077(전국 공용)
회장 方相勲 시장 方準悟 발행·편집·인쇄인 洪準浩 주필 楊相勲 편집국장 鮮于鉉
1920년 3월 5일 창간 · 1964년 1월 1일 등록번호 서울 기00193(日刊) 조선일보사
구독료: 한달 2만원, 1주 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두 번의 탄핵, 무엇을 배웠는가

朝鮮칼럼

윤 태 곤
정치 칼럼니스트

현재 탄핵 결정은 한 번뿐이지만 국회 탄핵안 의결은 모두 두 번

2004년 노무현과 2016년 박근혜

민주당도 탄핵은 '뜨거운 감자'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 조심조심 여당은 주류가 판도라 상자 열어

국회 전당대회 탄핵 위기론 보라

지난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최근 '탄핵'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서명하려는 사람들 이 몰려들어 북새통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니 이 숫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 같다.

탄핵에 진심이건, 단순히 경고장을 날리고 싶 건 간에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셈이라면 정반대 쪽에도 탄핵 이야기가 무성하다. 여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당권 주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과 대통령을 지키는 정통 보수를 자임하는 유튜버들이 탄핵 위기론과 대통령 탈당 가능성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취지를 보면 들을 만한 비판도 있지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 확대를 전쟁 위기 조장이라 주장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해 폐수 방류에 대한 대처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로 규정할 만큼 정합성이 떨어지니 큰 힘이 실리긴 어려울 것 같다.

특이한 것은 후자 쪽이다. 채 상병 특검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대통령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애당이 이를 기회로 밀어붙이면 차기 대권에 옥심이 있는 당대표가 가세해서 탄핵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사옥이 있는 여당 대표가 애당 편을 들어 탄핵에 가세하면 어떻게 차기 권력을 쥐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새로

운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도 대권 후보군으로 꼽히는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던 김기현 후보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그런 분란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은 단 한 차례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시킨 것은 두 번이다. 그 두 번에 대한 여야의 기억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과 현재 기각은 당시 신생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안착하고 지지층이 지금처럼 구조화되는 흐름으로 작동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선 지금 차례기 파동과 탄핵 책임론이 겹쳐 당의 문을 닫고 천막 신세를 지다가 겨우 기사회생했다.

2016년 겨울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후 기억도 정반대다. 조기 대선을 통해 민주당은 손쉽게 정권을 잡았고 지금까지 탄탄대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끝에 둘로 쪼개져 오랫동안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거렸다.

2021년에 진행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단 첫 전당대회에서 아분위기가 달라졌다. '박근혜 키즈' 이준석은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다른 생각과의 공존'을 강조하면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주실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서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며 박

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며 더 큰 당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은 이 주장을 수용했다. 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은 탄핵의 그림자를 떨쳐냈고 그 이후에서야 '(탄핵) 쟁불 정권'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검사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과 정권 교체가 이어졌다. 손쉽고 암도적인 정권 획득 이후 5년 만의 실권으로 민주당에도 탄핵은 일종의 뜨거운 감자 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속내야 어떻든 야당은 아직까지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다. 조국혁신당조차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앞장세웠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만 주관일을 계속 풍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당은, 그것도 주류를 자임하는 인사들이 이 판도리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혔다. 지난해 봄에 탄핵 위기론을 앞장세워 당권을 끊고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제대로 된 당정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제 목소리 내는 여당 노릇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무릎꿇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배신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바보도 자기 경험으로부터는 배운다"가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이다.

萬物相

'급발진' 미스터리

2009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911센터에 급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액셀러레이터가 제멋대로다. 속도가 시속 120마일(193km)까지 치솟았다. 브레이크가 막을 안 듣는다. 고속도로가 곧 끝나는데, 오 하나님." 전화 신고 직후 도요타 템페스 ES350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베테랑 운전사였다. '도요타 페달 게이트'의 시작이었다. ▶ 미국 ABC방송이 이 911 신고 전화를 공개하자 난리가 났다. "남편이 도요타 차를 사주면 생명보험부터 확인하라"는 블랙 유머까지 등장했다. 도요타는 자체 조사 후 "잘못 설계된 운전석 바닥 매트가 액셀러레이터를 물어서 생긴 사고"라면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까지 나서 차량 전자 제어 장치(ETCS)의 이상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 3년 뒤 다른 급발진 주장 소송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미국 소프트웨어(SW) 업체가 ETCS 시스템 내 메모리 영역에서 SW 간 간섭 현상이 급발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30초 금과 속 재현 실험'으로 밝혔다고 했다. 결국 도요타는 소비자 기만 혐의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조건으

로 미국 법무부에 별금 12억달러를 냈다. 하지만 이 실 힘은 도요타 캠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09년 렉서스 사고의 증가는 되지 못했다. ▶ 엉그제 사상자 15명 을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증명하게 돼 있어 원인 규명이 더 어렵다. 전문가 중에는 차량의 전자적 제어, 자동 변속기, 전기차 증가와 함께 급발진 사고가 늘었다는 점을 들어 '전자적 문제'가 주원인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 중에는 운전자가 가속기를 밟고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칙각한 경우가 많다. 해법으로 모든 차량에 운전자 발을 짓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마디로 아직도 '급발진'은 미스터리다. ▶ 급발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내 차에 급발진 징후가 있다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면속기를 중립(N)으로 바꾼 다음, 온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고, 가드레일·가로수 등 멈출 수 있는 물체를 들이받으라고 한다. 다급한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김홍수 논설위원

김도훈의
엑스레이 [27]

아재들은 거울을 보아야 한다

나는 미산 출신이다. 1899년 개항한 개항장이다. 우리 동네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구역이었다. 다니던 초등학교 도 원래 일본인 소학교였다. 매년 일본 출입생들이 방문하는 행사도 열렸다. 그래서 그랬는지 일본 노래도 곧잘 유행했다.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조'를 처음 들은 것도 그 시절이다.

'푸른 산호조'를 재발견한 건 영화 '러브 레터'가 개봉한 1999년이다. 주인공 남자가 조난당해 죽어가며 부르던 노래였다. 나는 그 노래가 좋았다. 희망 넘치는 곡조가 좀 설레게 하는 데가 있었다. 일본 거품 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임을 안 건 좀 더 후의 일이다.

한일 양국 뉴스가 '푸른 산호조'로 뒤덮였다. 결그룹 뉴진스 멤버가 일본 팬 미팅에서 노래한 덕이다. 영상은 수백만뷰가 넘었다. "3분으로 40년 전 일본을 끌어왔다"는 댓글에는 '좋아요'가 수천 번 찍혔다.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걸그룹이 부르다니 아재들에게는 선물이었다.

일본 한 대기업 성희롱 방지 교육은 이렇게 시작한다. 참가자들 자리에는 손거울이 놓여 있다. 강사는 말한다.

"자, 거울로 얼굴을 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젊은 여성이 당신에게 상냥한 건 상사

라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약간 불쾌함을 느낀 아재라면 지금 거울을 보시라. 아시겠죠?

문화 칼럼니스트

다른 아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멀뚱 위기 아재 지식인보호 구역 페이스북에는 불평 섞인 분석이 쏟아졌다. 가장 괴이한 분석은 이퍼포먼스 타깃이 '푸른 산호조'를 아는 중년 이상 남성이라는 소리였다. 10대 소녀가 아재들에게 애교를 떨게 만들다니 비윤리적이라는 불평이었다.

그럴 리가 있나. 중년 남성은 타깃이 아니다. 음반도 안 사고 관련 상품도 사지 않는 여려분은 매력적인 타깃이 될 수가 없다.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웃는다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듯, 결그룹의 타깃도 여러분이 아니다.

일본 한 대기업 성희롱 방지 교육은 이렇게 시작한다. 참가자들 자리에는 손거울이 놓여 있다. 강사는 말한다.

"자, 거울로 얼굴을 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젊은 여성이 당신에게 상냥한 건 상사

라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약간 불쾌함을 느낀 아재라면 지금 거울을 보시라. 아시겠죠?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7월 1일 게재 되었습니다.

한법을 수호하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한법은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다. 우리는 한법이 보호하는 가치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한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정당] 해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위헌정당] 해산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방어 조치다.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과 참여가 한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다. 두 정당 해산을 위한 [1백만 국민서명운동]도 시작한다. 함께 힘을 모아 [위헌정당]을 해산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

100만 국민서명운동

서명해주세요!

이 재 춘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전 주리사마대사

법무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진보당·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 해산 시켜야 한다

★ 민중주권 시대의 완수 ★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해체 ★ 중립적 통일국가의 건설 ★ 세계 진보적 국가와 국제 연대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는 공산주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피악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대체 정당이다. 이런 사실은 그들의 목적과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모습을 달리해 등장한 이들 [이석기의 후에]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헌법 무시 행정·사법부 협박